

진원시선

1. 김학균 / 꽃도 말을 했으면 좋겠다
2. 이한기 / 산수유 꽃이 피면
3. 홍명희 / 사람과 사랑의 꽃으로
4. 김학균 / 해질녘 망초꽃 위를 걷다
5. 망승만 / 뿌리와恨
6. 최재효 / 흔들리는 것은 사랑을 한다
7. 한기홍 / 가을 하늘, 고호의 캔버스
8. 한연순 / 돌담을 쌓으며
9. 망승만 / 황폐한 집
10. 이혜숙 / 추임새
11. 최재효 / 달하 노피곰 도드샤
12. 최재효 / 꽃 피고 지는 사연
13. 김지수 / 하늘 도화지
14. 홍명희 / 대 숲에서 묻는다
15. 명서영 / 시계
16. 최재형 / 할머니와 부지깽이
17. 차용길 / 밴드라미
18. 최재효 / 그대 하늘가
19. 차용길 / 소래포구
20. 장창식 / 가던 길 돌아서 바라보니
21. 배선옥 / 오래 전의 전화번호를 기억해 내다

진원수필선

1. 김석균 / 미국, 미국사람들
2. 김종웅 / 그날을 위하여
3. 배천분 / 그녀를 쫓아가는 봄빛
4. 변해명 / 길없는 길을 따라
5. 김묘진 / 산티산티
6. 변해수 / 엄마의 편지
7. 송재철 / 애증은 노을진 해변에서
8. 윤연옥 / 쉬운 말이 그리워
9. 최재효 / 六월에 내린 눈(소설)
10. 한미령 / 내 인생의 노트북
11. 신규철 / 바람이 그리는 수채화
12. 봉두개 / 봉두개 희곡집
13. 이 숙 / 노을처럼
14. 황홍구 / 그 여자네 집
15. 이영순 / 길
16. 김동빈 / 잡은 물고기 물 더주기
17. 정경해 / 시와함께 하는 그말
18. 차용길 / 얼굴로 피는 낙조는 붉은 와인 향이었다
19. 차용길 /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
20. 최재효 / 뒤돌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
21. 최재효 /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다

진원동화

1. 정경해 / 미안해 미안해
2. 한미령 / 세월호에서 온 편지
3. 정경해 / 동생이 태어났어요

진원자서전

1. 신원철 / 나는 富보다 명예를 선택했다

진원기타

1. 박창한 / 프라하의 봄은 오다(사진집)
2. 오순화 / 나무병원(조경)
3. 박성준 / 성지(聖地)의 흔적을 따라가며(성지순례후기)
4. 백예철, 송자 선교사 / 러브 잠비아(잠비아 선교체험기)

여강 최재효 작가가 2015년에 수필집을 상재한다. 작가를 지척에서 지켜보고 있는 필자로서는 그의 모습을 ‘시베리아 횡단열차’에 비유하고 싶다.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여 장대한 대륙을 횡단, 마침내 유럽 상테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는 열차의 긴 여정 동안, 수많은 역참에 부려놓는 갖가지 인간군상과 만물상의 모습을 상상 하면서, 그 하역되는 군상들이 최재효 작가의 筆談같다는 말이다. 그만큼 작가의 섬쉴는 필력과 깊이지 않는 왕성한 집필활동에 찬사를 보내는 마음이다.

이번에 상재한 수필집에서 그 치열한 작품세계를 우리는 여과 없이 확인할 수 있 다. 또한 인용되는 페르소나(persona)는 바로 작가의 본 수필집에 영롱하게 천착되 어 있는 隨筆觀과 적합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－ 시인/수필가 漢比 한기홍

창작 수필집

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다

글 최재효

정가 15,000원



도서출판
진 원

창작 수필집



저자 최재효

- － 아호 여강(驪江), 여천(驪川), 여정(驪庭)
- － 1960.4.4일 경기도 여주시 점봉동 86번지 출생
- － 여주시 점봉초등학교(30회), 여주중학교(26회), 여흥고등학교(현, 여주대 전신) 3회 졸업
- － 서울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(60회) 졸업
- － 文藝思潮, 韓國純粹文學으로 등단
- － 2007 한국영농신문문학상 수상
- － 2009 갯벌문학작가상 수상
- － 창작 단편소설집 『유월에 내린 눈』 2007년
- － 창작 시집 『사랑할 때 사랑해야』 2005 『흔들리는 것은 사랑을 한다』 2007 『달하 노피곰 도드샤』 2009 『꽃 피고 지는 사연』 2009 『그대 하늘 가』 2011
- － 창작 수필집 『뒤돌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』 2015 『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다』 2015
- － 한국문인협회원 / 순수문학회원
- － E-Mail : cjhoy6044@hanmail.net

도서출판 진원